

2020 ITU-R 전파통신자문반 회의 결과

이경희 국립전파연구원 국제협력팀장



1. 머리말

ITU-R 전기통신자문반(RAG, Radiocommunication Advisory Group)은 연 1회 개최되는 회의체이다. 주로 ITU 전권회의, 이사회, RA/WRC¹⁾의 결정 및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방안, 차기 RA/WRC 준비 방안, ITU-T/D와 조정·협력, ITU-R 부문 작업방법 및 활동을 검토하고 관련 활동 방향에 대해 연구반과 사무국에 자문한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2020년 4월 전파통신자문반 회의는 코로나19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42개 회원국과 국제기구 대표 등 약 210명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8명이 참가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첫 전파통신자문반 회의는 제네바 시각으로 11시부터 15시까지, 3일간 진행됐다. 이사회 이슈와 RA-19 및 WRC-19 결과, WRC-23 준비, 연구반 활동, 섹터 간 협

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후속 작업을 논의하였다. 본고에서는 RA-19의 후속 작업으로서 ITU-R 권고 승인 절차와 작업반(Working party) 의장단 임기 논의를 소개한다.

2. 주요 회의 내용

2.1 ITU-R 권고 개발·승인 절차 개정(결의 1)

RA-19에서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권고승인 절차를 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지구탐사/우주탐사 업무를 담당하는 WP7B와 5G 업무를 담당하는 WP5D가 같이 진행한 권고승인 절차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것이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19년 6월 SG7은 ‘26GHz, 32GHz, 37GHz 등 5G 주파수 대역에서 5G와 지구탐사/우주탐사위성업무 지구국 간 간섭회피’를 위한 신규 권고안을 개발했다. 그

1) 전파통신총회(RA, Radiocommunication Assembly), 세계전파통신회의(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리고 회람에 의한 채택/승인 동시절차(PSAA, Procedure for simultaneous adoption and approval)²⁾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채택 승인을 반대하였고, SG7 의장은 ITU-R 결의 1의 절차에 따라 해당 권고안을 WP7B로 되돌려 보냈다.

RA-19에서 러시아와 프랑스는 SG7 의장의 조치에 문제가 있고, 되돌려 보낼 것이 아니라 RA-19로 보냈어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BR 국장은 SG7 의장의 처리는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RA-19는 해당 권고안의 채택 및 승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 이와 같이 여러 연구반과 관련된 권고안의 승인 절차는 RAG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RAG-20은 2021년 RAG 회의에서 구성될 서신그룹의 작업 내용으로 이 이슈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2.2 ITU-R 작업반 의장단 임기제한 규정

RA-19에서 미국은 ITU-R 결의 15(전파통신 연구반, 용어조정위원회, 전파통신자문반의 의장과 부의장 임명과 최대 임기)에 대한 기고서를 제출했다. 기고서는 성비(gender equality) 및 지역적 균형 고려, 신규 리더 기회 부여 확대, 작업반 의장단에 대한 임기 적용 등 결의 개정을 위한 연구를 제안하였다. RA-19는 전파통신자문반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RA-23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현재 결의 15에서는 전파통신연구반, 용어조정위원회, 전파통신자문반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선출하고, 1회 연임(최대 8년)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연구반

산하의 작업반 의장단은 임기 제한규정이 없어 실제로 20년 이상 의장단 활동을 수행한 경우도 있다.

작업반 의장단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필요하고 연구반마다 전문가 인력풀 같은 환경이 다르다. 이 때문에 각 연구반에서 작업반 의장단 구성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미국이 의장단 교육 등 서신그룹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에 대해 2021년도에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내년 자문반 회의에서 서신그룹을 신설하여 결의 1의 개정사항과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2.3 ICT 분야 양성 평등선언의 후속조치

WRC-19에서 채택된 양성 평등선언(Gender declaration)의 후속 이행 방안을 자문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회의 결과, 전파통신자문반은 RA-23에 상정할 양성평등 선언 관련 결의를 개발하기 위한 서신그룹을 신설하였다.

이 서신그룹의 작업범위는 ITU-R 연구반과 CPM, 전파통신자문반의 작업에서 의장과 부의장, 라포처(Rapporteur)를 수임할 때 성비를 적절히 이루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이 활동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성 네트워크’ 작업을 지원하고 전파통신 부문에서의 성비 평등과 공평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한다.

이 서신 그룹은 전파통신 부문에서 양성 평등과 공평성을 촉진하는 신규 결의를 준비해서 30차 자문반 회의(2023년)에 제출해야 하고, 전파통신자문반 의장은 이를 RA-23에 제출할 예정


2) ITU-R 권고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2개월의 채택절차와 2개월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채택 절차를 시작할 때 한 번의 회람으로 2개월의 채택과 승인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채택과 승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PSAA이다.

이다.

루차 루이사 라 프란체스키나(Lucia Luisa La Franceschina, 이탈리아)가 서신 그룹의 의장을, 올파 자멜리(Olfa Jammeli, 튀니지)가 부의장을 수입하였다.

3. 맺음말

ITU-R 연구반 작업방법 결의(결의 1)와 작업반 의장단 관련 규정에 대한 결의 15 개정 방안은 RA-23에서의 개정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

이므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국 ITU연구위원회 전파통신연구단은 내년 자문반 회의까지 관련 동향 분석하고 필요 시 국가기고서를 제출하고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양성 평등선언 서신그룹 활동은 올해 개시될 예정이므로 한국ITU연구위원회 R연구단 회의를 통해 국내 참여 담당 위원을 선정하여 대응할 것이다. 다음 전파통신 자문반 회의는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고문헌

- [1] Summary of conclusions of the twenty-seven Radiocommunication Advisory Group Meeting <https://www.itu.int/md/R00-CA-CIR.0252/en>
- [2]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https://www.itu.int/en/ITU-R/conference/wrc/2019/Pages/default.aspx>
- [3] Radiocommunication Assembly <https://www.itu.int/en/ITU-R/conference/RA/Pages/default.aspx>
- [4] ITU-R 결의 1-6 Working methods for the Radiocommunication Assembly, the Radiocommunication Study Groups, the Radiocommunication Advisory Group and other groups of the Radiocommunication Sector
- [5] ITU-R 결의 15-6 Appointment and maximum term of office for Chairmen and Vice Chairmen of Radiocommunication Study Groups, the Coordination Committee for Vocabulary and of the Radiocommunication Advisory Group